



대한민국 「제1호 최고과학자」에 황우석 교수 선정

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 24일 서울 반포동 팔레스 호텔에서 최고과학자위원회(위원장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장)를 열고 10명 위원 만장일치로 서울대 황우석 석좌교수를 '제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황 교수의 수상 이유를 “사람의 복제 배반포에서 유래한 배아줄기세포주(SCNT-hES-1)를 확립한 업적 때문”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 세포주는 전형적인 배아줄기세포로서 배아체로 분화하는 능력을 지녔다”며 “정상적인 유전자 핵형을 유지함은 물론 이식한 체세포의 핵과 유전적으로 동일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황 교수로 인해 난치병 환자로부터 체세포와 핵을 추출, 환자 본인과 유전형질이 동일한 ‘맞춤 치료용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황 교수의 업적에 대한 심사의견서에서 ▲세계적인 과학저널 ‘네이처’가 황 교수에 대해 특별 인물소개와 뉴스를 게재한 점 ▲지난 1993년 국내최초 시험관 송아지를 생산하고 1999년 체세포복제 젖소를 생산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한 점 ▲면역 거부반응 없이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연 점 ▲대한민국을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중심지로 키우고 우리 국민의 자긍심을 높인 점 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최고과학자 선정 당시 주일대사관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중이던 황 교수는 “모든 연구 성과는 공동 연구진 덕분”이라는 말로 수상 소감을 대신했다.

과학기술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최고과학자’는 ‘최고과학자 국가관리 제도’를 근거로 연간 30억 원 내외의 연구비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또 이와는 별개로 최고과학자별 후원회가 결성돼 경제·사회적인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현재 과학기술 진흥기금에서 지원받는 연구비 20억 원 이외에 추가로 10억 원을 지원받게 되며, 오는 2009년까지 매년 30억 원씩의 안정적인 연구비 지원을 보장받게 됐다.

이번 최고과학자 심사는 31명의 각 분야 전문가가 과학기술관련단체 추천을 받은 20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연구업적과 향후 연구가능성 등을 심사했으며, 이 과정을 거친 최종 후보자 5명을 최고과학자위원회에 추천하는 절차를 거쳤다.

각 분야의 최종 후보에 오른 사람은 생명분야의 황우석 서울대 교수와 신희섭 KIST 책임연구원, 수리분야의 김진의 서울대 교수와 노태원 서울대 교수, 화학·화공분야의 김기문 포스텍 교수 등이다.

이들 후보에 대한 최종 심사를 맡은 최고과학자위원회는 최석식 과기부 차관과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권오갑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채영복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정근모 과학기술한림원장, 윤종용 공학한림원장, 박상대 기초기술이사회 이사장,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 임 관 삼성종합기술원 회장, 허영섭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황 교수의 최고과학자 선정 이후 과학전문지 동아 사이언스가 “연구비 지원과 국가 예산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냐니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네티즌 의견을 묻자 “황우석 교수의 연구 성과로 볼 때 마땅히 지원받아 우리 나라를 줄기세포 분야의 강국으로 발전시킨다면 더없이 훌륭한 일”(allerydce) “최고과학자라는 자리가 오히려 황우석 교수님이 있어서 더욱 빛나는지도 모른다”(kiwi00kiwi) “과학자를 꿈꾸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줬다”(kdh4801) 라는 의견들이 잇따라 올라와 황 교수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㉔

글_김현 기자 hkim@kofst.or.kr